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s on Probation

허정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ong-Cheol Heo(jcheo@kw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 영역 가운데 현실성, 준비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결정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 영역 가운데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문제해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 더욱더 체계적인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 진로태도성숙도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a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ality and preparedness among the sub-area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terminacy. Also, the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oal selection, job information and future plans among the sub-area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blem solu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 had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or better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adolescents under probation, more organized studies on career group counselling programs are needed and their usability should be reinforced.

■ keyword : |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 Career Attitude Maturity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I. 서론

직업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생활의 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 선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진로는 한 인간의 인생애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보호관찰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그 동안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하창순[1]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직업의 특성, 직업의 조건, 직무, 자신의 신체적 조건, 미래 사회의 직업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이 낮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낮으며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가치관 등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선택시 고민하는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혜래와 이해원[2]은 청소년 비행과 진로 성숙의 관계 연구에서 진로성숙이 비행의 보호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문미란[3]은 일반 중학생과 보호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비행간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진로능력이 높을수록 비행을 저지르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학생의 직업 이해가 높을수록, 진로지식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을 잘 할수록 비행을 저지르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임으로써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희란[4]도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의식이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고,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인 확신성, 준비성, 결정성, 독립성 등에 있어서도 일반청소년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며[5],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업을 찾기 때문에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이직하거나 실직하는 과정을 반복하거나 또 다시 비행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6].

따라서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은

매우 중요하며 그 방향 또한 일반 청소년과는 다르게 실시되어야 한다. 그 동안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7-11], 보호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진로의식이 잘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인 진로와 삶에 대한 목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본 연구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둘째,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이형득[12]은 진로집단상담을 비교적 적은 수의 정상인들이 한 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관계성의 역할을 토대로 하여 신뢰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 혹은 한층 높은 수준으로 개인의 성장·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관계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장호·김정희[13]는 진로집단상담이란 생활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의 지도와 동료들과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각자의 감정, 태도, 생각 및 행동양식 등을 탐색 이해하고 보다 성숙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영석[14]은 진로집단상담이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영위하기 위한 진로집단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이며,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친밀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 자신과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로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내담자가 집단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피드백으로 인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집단구성원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집단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탐색해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음으로 개인상담에서 얻을 수 없는 면을 보완하는 이점이 있다[15]. 장해숙[16]은 진로집단상담은 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기이해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상담자와 동료집단들이 함께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란 집단활동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기본 욕구를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진로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2. 진로태도 성숙도

진로태도성숙의 개념은 1940년대 청소년들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시작되어 1950년대 직업선택에 대한 발달이론가들에 의해 발달된 개념이다. Gribbons와 Lohnes[17]는 진로태도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Crites[18]는 진로태도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진로준비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Hoyt[19]도 진로태도성숙을 직업세계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진로선택과 진로계획을 잘 통합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태도성숙이란 어떤 개인이 자기에 대하여 판단하고 직업의 세계를 살펴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기와 같은 연령층의 집단과 비교해 볼 때 그 개인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한다[20]. 노성환[21]은 성숙한 진로태도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적성 및 능력과 전반적인 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진로에 대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한 합당한 태도를 의미하며 동일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 과업의 수행 정도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용옥[22]은 진로태도성숙이란 특정 개인이 진로를 탐색할 때 자아와 일의 세계를 기초로 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인식, 선택, 계획하는 준비의 정도라고 하였다. 최경희[23]는 진로태도성숙이란 개인이 진로선택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진로태도성숙도를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는 정도, 개인적·상황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정도,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준비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결정성, 현실성, 준비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Hackett과 Betz[24]가 진로발달이론에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접목시킨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Hackett과 Betz[25]는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하였다.

Mazurek과 Shoemaker[26]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현주[27]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성식[28]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로결정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진로태도성숙도

김희숙[29]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생의 진로태도 성숙도가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진로태도 성숙도 하위 영역 가운데, 준비성과 현실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송태우[30]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에서 결정도 영역, 관여도 영역, 독립도 영역, 선택의 태도 영역에 대하여 효과가 있었으나 나머지 하위영역인 타협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서영석[14]은 진로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진로태도성숙도 검사에서 결정성 차원, 준비성 차원, 독립성 차원, 확산성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으나, 목적성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타나내지 못했다. 손지윤[31]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전문계 여자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영역인 준비성, 독립성, 확산성, 결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손정수[32]도 진로준비 프로그램 집단상담은 특성화 고교생의 진로태도성숙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일정기간 진로준비 프로그램 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타협성,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강덕구[33]는 진로탐색 집단상담과 진로태도성숙도(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독립성, 진로성향, 진로타협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독립성, 진로성향은 진로탐색 집단상담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진로타협성은 진로탐색 집단상담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노기숙[34]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에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다. 손정수[32]는 진로준비 프로그램 집단상담은 특성화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일정기간 진로준비 프로그램 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총점과 그 하위영역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서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음이 나타났다.

강덕구[33]는 진로탐색 집단상담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4개 하위 요인 모두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목표선택과 문제해결은 월등하게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경[35]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일반계 여고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인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영역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임영미[36]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에게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세부 수행계획을 세우는데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성공 경험은 진로고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미희[37]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에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총점과 하위 영역인 목표설정, 직업정보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가지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2.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Glasser[38]와 Wubbolding[39]의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한 The Quality World Activity Kit를 한국 청소년들에게 맞게 김인자[40]가 편역한 청소년 성장 훈련프로그램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다. 프로그램은 관계형성단계, 욕구·바람 탐색단계, 전행동 탐색단계, 자기평가단계, 계획세우기단계, 종결/평가단계 순서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청소년의 강점개발, 진로박람회 참가, 진로준비활동평가, 미래이력서 작성, 매주 멘토-멘티의 면담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표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	단 계	활동내용	시간
1	관계형성단계	프로그램 목적 및 진행과정 소개 자기소개	90분
2		멘토-멘티 등산	90분
3	욕구·바람 탐색단계	기본욕구와 바람 점검 과거에 원했거나 현재 원하고 있는 직업 목록 만들기	90분
4	전행동 탐색단계	청소년의 강점개발 자신의 장점과 단점 알기	90분
5		사례회의(1), 피드백	90분
6		진로박람회 참가 MBTI 검사 등 자신의 적성과 맞는 직업 찾기	90분
7		봉사를 통한 보람 장애아동과 함께 만들기 일일교사	90분
8		자기평가단계	진로준비활동평가 원하는 진로와 현실상황 비교 진로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 점검, 진로걸림들 찾아보기
9	계획세우기 단계	진로계획 및 생애설계 미래이력서 작성, 소감나누기	90분

10		사례회의(2), 피드백	90분
11		멘토-멘티 단체활동 (영화관람)	90분
		멘토-멘티 단체활동 (실내체육관에서 스케이팅타기)	90분
12		프로그램에 대한 종결 및 평가	90분
13	종결/평가단계	효과성측정, 종결감정나누기	90분

3. 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 test-Post test Group Design)로써 독립변인은 실험집단에게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것이고, 그에 따른 종속변인은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점수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사전-사후검사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프로그램진행	사후검사
실험집단	O,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x)	O,
통제집단	O,		O,

실험집단: 진로집단프로그램실시, 통제집단: 프로그램실시하지 않음

4.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프로그램은 2013년 4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3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 보호관찰소 여자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집단은 참여를 원하는 보호관찰소 여자청소년 중 12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으로, 통제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여자청소년 중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12명을 선정한 후, 총 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출석율은 95.2%로 매우 높았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또한 통제집단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수감명령 및 봉사활동 등을 하였다.

5. 연구도구

5.1 진로태도성숙도

진로태도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과 한종철

[41]이 제작한 것을 수정하여 재구성 하였다. 이 척도에는 결정성(9문항), 현실성(12문항), 준비성(9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진로태도성숙도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하위 영역	내용	해당문항번호	사전 (a)	사후 (a)
결정성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는 정도	1,2,3,9,14,15,16,18,23	.76	.72
현실성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상황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정도	4,5,7,8,10,17,19,20,22,25,28,29	.74	.75
준비성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정도	6,11,12,13,21,24,26,27,30	.81	.86
합계		총 30문항		

1.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Taylor와 Betz[42]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를 Betz, Klein, Taylor 등이 단축형으로 개발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기학과 이학주[43]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척도를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이은경[44]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목표선택(11문항), 직업정보(6문항), 문제해결(3문항), 미래계획(5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하위 영역	내용	해당문항번호	사전 (a)	사후 (a)
목표 선택	원하는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가	1,2,3,6,8,9,11,14,18,20,22	.76	.82
직업 정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	7,15,19,21,23,24	.74	.72

문제 해결	원하는 직업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13,17,25	.72	.78
미래 계획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5,10,12,16	.83	.81
합계		총 18문항		

6. 자료분석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얼마 만큼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1)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전결과를 독립표본 t 검증하였다.
-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가. 진로태도성숙도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 사전검사 비교

진로태도 성숙도	집단 (N=15)	M	SD	t	p
결정성	실험집단	3.2708	.8530	.385	.769
	통제집단	3.1865	.7962		
현실성	실험집단	2.6944	.4238	-.536	.618
	통제집단	2.7875	.5317		
준비성	실험집단	3.4792	.9467	.372	.812
	통제집단	3.3857	.8972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태도성숙도 전 하위

영역에 걸쳐 $p > .05$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진로태도성숙도에서 동질집단으로 판단되었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검사 비교

진로준비 행동	집단 (N=15)	M	SD	t	p
목표선택	실험집단 통제집단	2.9848 2.8524	.5375 .5632	.653	.569
직업정보	실험집단 통제집단	2.5833 2.6898	.6213 .7247	-.334	.963
문제해결	실험집단 통제집단	2.5556 2.6753	.7200 .6837	-.389	.931
미래계획	실험집단 통제집단	3.0833 2.8975	.9442 .8543	.837	.485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p > .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가. 진로태도성숙도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태도성숙도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태도성숙도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태도 성숙도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결정성	실험	3.2708	.8530	3.3958	.4835	-.527	.621
	통제	3.1865	.7962	3.2793	.6825	-.475	.694
현실성	실험	2.6944	.4238	3.1250	.3106	-3.971	.011
	통제	2.7875	.5317	2.7124	.4973	.414	.727
준비성	실험	3.4792	.9467	4.0000	.4743	-2.753	.040
	통제	3.3857	.8972	3.2783	.5347	.592	.535

위 [표 7]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도 하위 영역 가운데 현실성, 준비성 영역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정성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은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상황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정도인 ‘현실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멘토-멘티 개인면담시간에 진로준비활동평가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점검하고, 자신의 진로에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실현가능성 등을 인지해 보는 시간을 통해 진로태도성숙도 영역 가운데 ‘현실성’ 부분이 향상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학교로 다시 복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검정고지 학원을 다닐 것인지, 아니면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과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정도인 ‘준비성’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자 진로박람회에 참가하고, 자신의 진로준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방법들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멘토 대학생들을 통해 간호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교 복학을 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준비를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하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는 정도인 ‘결정성’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목표선택	실험	2.9848	.5375	3.6818	.3625	-2.726	.041
	통제	2.8524	.5632	2.9824	.4632	-.475	.614
직업정보	실험	2.5833	.6213	3.5278	.3561	-3.485	.018
	통제	2.6898	.7247	2.6998	.5283	-.215	.897
문제해결	실험	2.5556	.7200	3.0000	.6992	-1.085	.328
	통제	2.6753	.6837	2.6013	.5984	.252	.815
미래계획	실험	3.0833	.9442	3.9583	.4306	-2.621	.047
	통제	2.8975	.8543	2.7945	.5247	.239	.852

위 [표 8]의 검사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영역 가운데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으며,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멘토-멘티의 개인면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과거에 원했거나 현재 원하고 있는 직업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잘 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실행에 옮기도록 도왔다. 특히, 미래이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꿈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하였으며, 어떤 청소년은 진로집단상담멘토링 활동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였고,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멘토 대학생들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말벗이 되어 주고, 잘 챙겨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재미있게 놀아주고, 함께 하는 단체활동들을 통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매우 밝

아지고,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위해 꾸준히 준비하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영역가운데 문제해결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의지력이 떨어지고,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 하위 영역가운데 현실성, 준비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정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가운데 멘토와의 개인면담 시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현실상황과의 비교를 해보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현실성 부분에서 향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계획 및 생애설계를 하는 시간을 통해 미래이력서를 작성해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됨으로써,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거나,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준비성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진로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를 알아 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결정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인 현실성 및 준비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김희숙[2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영역인

결정성 차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송태우[30], 서영석[14], 손지윤[31], 손정수[32], 강덕구[3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 영역 가운데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가운데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미래이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멘토와의 개인면담이나 진로박람회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목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해결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고, 상황판단능력도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지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는 노기숙[34], 손정수[32], 강덕구[3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문제해결 차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현수경[35], 김미희[3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진로집단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은 진로집단상담 멘토링 활동을 통해 대학생 멘토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로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대학생 멘토와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대상자의 수와 선정에서 제한

점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참고 문헌

- [1] 하창순,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 김혜래, 이혜원,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지위 비행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13호, pp.51-74, 2007.
- [3] 문미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4] 이희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진로요구, 직업가치, 진로성숙도의 차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 김성범, *비행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6] 양종국, “체험활동중심 진로탐색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92-105, 2004.
- [7] 김미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8] 홍설,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능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9] 손종하,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능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강덕구, *진로탐색집단상담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1] 황미은, *독서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2]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8.
- [13] 이장호, 김정희,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법문사, 1997.
- [14] 서영석, *REBT를 적용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5] 윤희선,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6] 장해숙,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7] W. D. Gribbones and P. R. Lohnes, *Career development*, Weston, MA: Regis Coll, 1996.
- [18] J. O. Crites,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1981.
- [19] K. B. Hoyt, *The school counselor and education*,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 [20] 양문혜,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성숙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1] 노성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2] 이영옥, *현실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3] 최경희,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acation Behavior*, Vol.18, pp.326-339, 1981.
- [25] G. Hackett and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4, pp.279-289, 1986.
- [26] N. Mazurek and A. Shoemaker,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 Implication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service provid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ED 089 764), 1997.
- [27] 이현주,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제38권, 제1호, pp.235-257, 2000.
- [28] 이성식,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9] 김희숙, *진로탐색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0] 송태우, *진로인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1] 손지윤,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전문계여자고등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2] 손정수, *진로준비 프로그램이 특성화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3] 강덕구,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4] 노기숙,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5] 현수경,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일반계 여고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

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6] 임영미, *Holland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7] 김미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8] W. Glasser, *Choice theory*, New York: Harper & Row, 1998.
- [39] R. E. Wubbolding, *Using realit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1989.
- [40] 김인자, *현실요법과 선택이론: 나의 삶, 나의 선택*,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1997.
- [41] 이기학, 한종철,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0권, 제1호, pp.167-189, 1998.
- [42] K. M. Taylor and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pp.63-81, 1983.
- [43] 이기학·이학주,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수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2권, 제1호, pp.127-136, 2000.
- [44] 이은경,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저 자 소 개

허 정 철(Jeong-Cheol Heo)

정회원



- 1994년 2월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분야